



"죽어서도 무당 빌려 말하는데 살아서 말 못 할까"

뜻: 죽은 사람도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데, 살아있는 사람이 억울하거나 할 말이 있을 때 참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표현 · 의지 · 당연함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죽	어	서	도	↓	무	당	↓	빌	려	↓	말	하	는	데
살	아	서	↓	말	↓	못	↓	할	까		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죽	어	서	도	↓	무	당	↓	빌	려	↓	말	하	는	데
살	아	서	↓	말	↓	못	↓	할	까		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	↓			↓			↓				
				↓			↓			↓	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조ㅇㅅㅇ] [모ㅇ] [바ㅇ] [모ㅇㅇㅇ] [ㅇㅇㅇ] [모] [모] [ㅇㅇ]

웹에서 보기

